

2023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일반사회

수험 번호 : ()

성 명 : ()

제1차 시험	2 교시 전공 A	12문항 40점	시험 시간 90분
--------	-----------	----------	-----------

- 문제지 전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 모든 문항에는 배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1.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용어와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과목명을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순서대로 쓰시오. [2점]

송 교사: 선생님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사회과 선택 과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윤 교사: 저는 '사회문제 탐구' 과목을 수업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탐구 수업을 실행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학생 스스로 탐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단원이 구성되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 교사: 저도 동의합니다. '사회문제 탐구' 과목은 선택 과목 중에서도 일반 선택 과목이 아니라 (㉠) 과목입니다. (㉠) 과목은 교과 간 융합학습, 진로 안내 학습, 교과별 심화학습, 실생활 체험학습 등을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홍 교사: 저는 일반사회 영역의 일반 선택 3과목 중 (㉡) 과목을 가르치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이해 등을 다루고 있어 시민교육을 위한 핵심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이 교사: 같은 일반 선택에 속하는 '사회·문화' 과목이나 '경제' 과목 역시 시민교육의 핵심 소양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로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언제나 일반사회 전공 교사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2. 다음 글에서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2점]

이 교사: '정치과정과 시민참여' 단원을 처음 가르치게 되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선생님들은 평소에 이 단원에 대해 어떻게 수업하고 계시나요?

김 교사: 저는 민주주의의 핵심이 시민의 정치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단원을 가르칠 때 "시민으로서 투표에 꼭 참여해야 한다."라고 늘 강조하고 있어요. 투표 참여를 강조하다 보면, 학생이 투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나중에 선거권을 갖게 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시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어요.

박 교사: 저는 학생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탐구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단원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참여를 주제로 학생이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에 따라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게 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학생이 스스로 탐구를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사회과 수업에서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사항이 아닐까요?

이 교사: 바, 바스와 셔미스(R. Barr, J. Barth, & S. Shermis)의 분류에 따르면 김 선생님은 (㉠)(으)로서의 사회과 전통을, 박 선생님은 (㉡)(으)로서의 사회과 전통을 지지하시는군요.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사회과에 대한 생각을 다시 돌아보고 '정치과정과 시민참여' 단원의 수업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3. 다음 글에서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2점]

미드(G. H. Mead)는 자아 형성과 발달에 있어서 역할 취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자아 형성과 발달이 몇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첫 번째, '준비' 단계는 의미에 대한 이해 없이 타인의 행동이나 말을 단순히 흉내 내거나 모방하는 단계이다. 이때는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자극에 대해 어느 정도 반응을 하고 아주 제한적으로 역할 모방을 한다. 두 번째, '놀이' 단계는 놀이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역할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단계이다. 이때는 의미 없는 모방이나 흉내를 넘어서 자아상이 도출될 수 있는 최초의 역할 취득이 이루어진다. 세 번째, '(㉠)' 단계는 실제로 구체적인 역할을 취득하여 일관되고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를 거치면서 개인이 정해진 규칙을 인지하고 어떤 역할과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사회화 과정 전체의 통일성을 표상하는 (㉡)의 역할과 태도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개인은 공동체의 보편적인 신념, 가치, 규범을 내면화하게 된다.

4. 다음 글에서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2점]

시민법적 자유 아래에서 근로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헌법 제33조에서는 근로3권(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선 (㉠)은/는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향상을 위하여 단결체의 조직 및 가입을 보장하는 권리이다. 이것은 근로조건을 향상을 위하여 보장된 것이며 근로자끼리의 공제나 정치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장된 것이 아니다. 한편 근로조건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단체교섭으로 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를 권리로 보장한다. 그런데 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이 자기의 주장을 실행함으로써 관철하기 위하여 집단행위를 할 수 있는 (㉡)을/를 권리로 보장한다. (㉡)은/는 근로자가 파업이나 태업 등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인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 다음 글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교 수: 지금까지 사회과 내용의 범위와 계열을 조직하는 대표적 원리인 (㉠)와/과 나선형 교육과정의 원리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이제 각 원리가 2015 개정 사회과 교육 과정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문서를 통해 살펴봅시다. 먼저 (㉠)의 원리가 반영된 사례를 찾아볼까요?

학생 1: '사회' 과목 교육과정을 보니,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3~4학년은 우리 고장과 우리 지역, 초등학교 5~6학년은 우리나라와 지구촌에 대해 학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3~4학년에서도 지구촌 사례를 배울 수 있도록 하여 탄력적 (㉡)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 수: 잘 찾았군요. 나선형 교육과정의 원리가 드러난 부분도 찾아보세요.

학생 2: 성취기준 [4사04-03]에 '자원의 (㉢)(으)로 경제활동에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함을 파악하고', [9사(일사)08-01]에 '경제활동에서 (㉣)(으)로 인한 합리적 선택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12경제01-01]에 '사람들의 경제생활에서 (㉤)이/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합리적 선택의 필요성을 이해한다.'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교 수: 여기에 나선형 교육과정의 원리가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생 2: (㉣)(이)라는 개념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 수: 답변이 불충분하네요. 보충하자면, 나선형 교육과정의 원리는 동일한 개념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사회과 교육과정 조직 원리의 명칭을 쓰고, 이에 대한 비판점을 1가지 서술할 것.
-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개념을 쓸 것.
-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내용을 나선형 교육과정의 의미에 부합하게 문장으로 서술할 것.

6. (가)는 예비교사가 작성한 수행평가 계획의 일부이고, (나)는 지도교사가 (가)에 대하여 지도한 내용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 평가 과제: 모둠별로 사회집단에서 나타나는 차별 사례를 조사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작성한다.
- 평가 방법: 연구 보고서법, (㉠)법, 자기 평가
- 평가 시 유의사항

- (㉠)법을 활용하여, 모둠별로 사례를 조사하는 단계에서 개별 학생들이 모둠 구성원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교사가 (㉡)하면서 평정척도법으로 측정한다.

... (하략) ...
- 평가 기준표

평가 방법	평가 항목	우수	보통	미흡
연구 보고서법	보고서의 완성도			

(나)

수행평가를 적절하게 계획하였군요. 다만, 몇 가지 수정·보완을 제안합니다.

첫째, 평가 방법에서는 평가 주체를 다양화하면서도 무임승차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모둠 내 구성원들이 서로 평가하는 (㉢)을/를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연구 보고서의 경우 평가 항목을 '보고서의 완성도'라는 하나의 항목보다는 '사례의 적합성', '조사 내용의 충실성', '분석 내용의 타당성', '해결 방안의 적절성'과 같이 여러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항목별로 각각의 수행 수준에 해당하는 학생의 행동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평가 전에는 '학생이 (㉣)(이)라는 장점이 있고, 평가 후에는 '학생이 (㉤)(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용어와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평가 방법을 순서대로 쓸 것.
-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내용을 1가지씩 순서대로 서술할 것.

7. 다음 글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공공선(the public good)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루소(J. J. Rousseau)는 공공선을 일반의지와 연관하여 설명하였다. 루소가 생각하는 일반의지는 항상 옳고 정의로우며, 공익을 위한 것이다. 루소에 따르면, ㉠ 일반의지(general will)는 나 자신과의 자발적 계약으로 만들어진 산물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한, 나는 항상 자유롭고 동시에 타인의 자유도 보장할 수 있다. 그 안에서 개인의 자유는 시민적 자유의 형태로 발전하며, 공공선이 실현된다.

한편 (㉡) 입장에서는 공공선을 모두 또는 다수에게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선은 어떤 사회의 총체적 효용(aggregate utility)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선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의 목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두어야 한다.

이와는 달리 속의 민주주의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사려 깊은 토론과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정당한 결정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공공선이 실현된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하버마스(J. Habermas)는 '의사소통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삶의 영역'을 의미하는 개념인 (㉢)을/를 제시하면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토론을 가능하게 해 줄 (㉣)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작성 방법>

- 밑줄 친 ㉠의 관점에서 '법에 관한 시민의 이중적 지위'에 대해 "시민은 ~이면서 ~이다."라는 방식으로 서술할 것.
-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관점과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쓸 것.

8. 다음 글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국제정치에서 국제기구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역할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자유주의 관점은 국제기구가 국가들의 이익을 반영하는 국제 정치의 주요한 초국가행위자로서,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영역을 넘어서는 독립적 영향력과 자율성을 갖는다고 본다. 특히 코헤인과 나이(R. Keohane & J. S. Nye)는 국제사회의 행위자들 간 (㉠)이/가 다양해지고 심화되는 상황에 주목하였다. 그들은 국가와 비국가행위자 사이의 연계성과 의사소통이 증가하면서 국제기구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는 '복합적 (㉡) 이론'을 제시하였다.

(㉢) 관점은 국제관계의 중심적 행위자를 국가라고 보며 국제관계를 국가 간 힘의 정치로 파악한다. 또한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상관없이 모든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고 본다. 여기서 말하는 자국의 이익이란 상대적 이익인데, 이것은 자국의 이익이 협력하는 상대 국가가 갖는 이익보다 더 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협력의 가능성은 낮아진다.

한편 구성주의 관점에서는 국제기구를 국제사회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지는 결과물로 본다. 이러한 시각에서 국제 협력의 정도는 개별 국가가 자신의 정체성과 이익을 어떻게 규정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 관점에서는 '배타적인 최고 권력이자 대외적 자립'을 의미하는 개념인 (㉣)조차도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 작용과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쓸 것.
-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관점을 쓰고, 이 관점에서 보는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대국'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서술할 것.

9. 다음 글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 10분위분배율은 상이한 소득계층 간에 총소득이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가를 진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이다. 한 나라의 전체 가계를 소득수준에 따라 최하위 가계에서 최상위 가계까지 배열하였다고 하자. 이렇게 정렬한 가계들을 10등분하고 등분된 계층별 소득분포자료로부터 분배의 불평등도를 측정한다. 10분위분배율은 이러한 계층별 소득분포자료에서 (㉡)을/를 (㉢)(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10분위분배율은 특정 소득계층의 소득분배 상태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전 소득계층의 소득분배 상태를 진단할 때에는 로렌즈곡선과 ㉡ 지니계수를 사용한다. 로렌즈곡선은 계층별 소득분포자료에서 가계의 누적비율과 소득의 누적점유율 사이의 대응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며, 지니계수는 로렌즈곡선에서의 소득분배 상태를 숫자로 표시한 것이다.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내용을 순서대로 쓸 것.
- 밑줄 친 ㉠이 작아진다면 소득분배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서술할 것.
- 밑줄 친 ㉡이 작아진다면 소득분배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서술할 것.

10. 다음 글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이 누리는 생활양식을 유일한 문화라 여기고 다른 유형의 생활양식은 낯설고 열등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성장한다. 문화 인류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를 (㉠)(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태도는 종교적 선교나 식민 지배 등 타문화를 변화시키려 했던 행위로 이어져 인류 사회에 끊임없는 분쟁을 불러왔다.

이와는 반대로 (㉡)은/는 각각의 문화를 타문화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문화의 고유한 가치가 존재한다고 전제한 후, 어떤 문화도 다른 문화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 특정한 문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전혀 상관하지 않아야 하고, 문제를 제기하거나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쓸 것.
- 괄호 안의 ㉠ 태도의 긍정적 측면 1가지와 밑줄 친 ㉢에 나타난 태도의 문제점 1가지를 순서대로 서술할 것.

11. 다음 글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자료 1>

민법 제110조
 ① (㉠) (이)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 (중략) ...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 하지 못한다.

<자료 2>

갑 소유의 A건물을 을에게 팔지 않으면 갑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을이 협박하자, 갑은 이를 못 이겨 A건물(시가 10억 원)을 을에게 2억 원에 매각하고 2020년 6월 1일에 등기를 이전해 주었다.

교 수: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정상적 의사표시’ 규정 중 하나인 민법 제110조와 관련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에 따르면 <자료 2>의 사례에서 갑은 A건물의 매매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학 생: 네,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교 수: 맞습니다. 그러면 심화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자료 2>에서 이하의 사실이 추가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을은 자신에게 등기명의를 있음을 기화로, <자료 2>의 사정을 전혀 몰랐던 병에게 A건물을 10억 원에 전매하여 같은 해 7월 1일에 등기를 이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갑은 같은 해 8월 1일, 을에 대한 A건물의 매매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본 사례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면, 갑은 A건물을 병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학 생: 갑은 A건물을 병으로부터 (㉢) .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용어를 쓸 것.
-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고, 그 근거를 괄호 안의 ㉢에 들어갈 내용을 포함하여 서술할 것.

12. 다음은 대법원의 판례를 발췌하여 수정한 것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갑은 고문치사로 기소되어 제1심과 제2심에서 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관은 직원에 대해 적법한 행위를 명령할 권한이 있다. 직원이 소속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따라 한 행위는 (㉠)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관은 직원에 대해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명령할 권한은 없다. 따라서 직원인 갑은 참고인으로 소환된 사람에게 가혹행위를 하라는 것과 같은 소속 상관의 명백한 위법명령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

갑은 자기가 근무하는 조직에서 직원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이 불문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법질서는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고문을 금지한다. 따라서 상관의 명령에 의한 고문치사와 같은 범법행위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한 행위인 (㉡)에 해당하여 (㉢)이/가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쓸 것.
-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고, ㉢이 조각될 때 행위자를 벌하지 않는 이유를 서술할 것.

<수고하셨습니다.>